



2021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오전)



| | |
|------|--|
| 성명 | |
| 전형 | |
| 수험번호 | |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5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극장의 비유’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 경쟁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비유다. 어느 도시에 영화를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계단식 극장이 있다.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남녀 주인공의 멋진 사랑을 다룬 영화다. 사람들이 가득 찼다. 영화는 시작되었고 모두들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맨 앞줄의 누군가가 별떡 일어섰다. 자기 혼자만 주인공의 멋진 모습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였다. 그 옆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나도...”라고 말하며 일어서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 그 뒷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영화를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순간에 바로 앞줄 사람들에게 “좀 앉으시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 결례가 되거나 보복을 당할까봐, 그리고 짜증도 나고 귀찮기도 해서 자기도 그냥 일어서 버렸다. 약 30분 늦게 극장에 들어온 사람이 “어? 내가 잘못 들어왔나?” 할 정도로 이상하다. 모두 일어서서 영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있다가 맨 앞줄 사람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영화를 보기 시작한다. 자기 혼자만 영화를 더 잘 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 옆 사람도 의자 위에 올라간다.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영화를 본다. 만약 사람들이 이 영화관 속의 사람들을 보았다면 아마도 “미친 사람들”이라 했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나 혼자만” 잘살겠다는 이기적 행동이 온 사회를 미친 사회로 만들 수 있다. 오늘날 생존경쟁이 바로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나 혼자만 잘살고자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경쟁, 그런 ‘적대적 경쟁’의 구도 위에서는 어느 누구도 참된 인간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다.

— 강수돌, 『팔꿈치 사회』

(나)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벼」

(다)

‘경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말이다. ‘자신과의 경쟁’이라는 말은 의미를 너무 확장한 것으로, 그 단어가 뜻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부정확한 표현은 때때로 경쟁이 필연적이고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할 때 이용된다. 즉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도 어쨌든 일종의 경쟁이고, 게다가 누구의 실패도 야기하지 않으므로 경쟁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의미 있는 경쟁 옹호론이 아니라 단지 말장난일 뿐이다.

‘협력’은 단지 비경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제도를 의미한다. 구조적 협력이란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나의 성공은 당신이 성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노력의 대가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성취에 의해 결정된다. 요컨대 협력적인 교실이란 단지 학생들을 함께 앉히거나, 서로 얘기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일의 성취는 개인이 아니라 그 반의 모든 학생들에게 달려 있으므로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협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개념이 모호한 어떤 이상주의와 연관하여 생각하거나, 기껏해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협력과 이타주의를 혼동하기 때문이다. 협력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반면 경쟁에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쟁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절대 진실이 아니다. 구조적 협력은 흔히들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면 이타주의’라는 식의 이분법에 맞서는 개념이다. 그것은 상대방을 돕는 것과 스스로를 돕는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비록 처음의 동기는 이기심이었다고 해도, 협력은 서로를 같은 운명으로 묶어준다. 협력은 현명하며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실용적인 선택이며, 타인과의 경쟁 없이도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내는 기초가 된다. 협력이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 알피 콘, 『경쟁에 반대한다』



[문제 1-1]

(가)와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상반된 방법을 보여준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가)의 목표 달성 방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를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호남은 '푸른색' 영남은 '분홍색'...지역주의 벽 더 높아졌다.

민주당은 호남 의석을, 미래통합당은 영남 의석을 싹쓸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0시 10분 현재 전국 개표율 69.5% 상황에서 호남 28개 지역구 중에서 27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득표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TK(대구·경북) 25곳 중에선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24곳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 중이다. PK(부산·경남) 34곳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26개 선거구에서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에 21대 총선에도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중앙일보]

(나)

'통합당 심판' 현실화됐을 뿐, 21대 총선 '지역주의'는 오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전국 시군구 250곳의 정당득표율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부산·대구 지역에서 고전했지만 전국적으로 득표율 상승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총선에 비해 부산 지역의 정당득표율은 1.7%p 상승했고, 0.07%p 하락한 대구에서도 수성구·달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6곳에서 모두 득표율이 올랐다. 열세 지역인 경북·경남에서도 민주당은 4년 전에 비해 각각 3.25%p, 1.24%p씩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출처: 경향신문]

(다)

제시문 (가)와 (나)에서와 같이 언론에서는 두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인 지지를 얻은 정도를 지역주의 투표라 부른다. 아래의 <표>는 미래통합당이 전국득표율에 비해 영남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이 더 높은 정도(a)와 민주당이 전국득표율에 비해서 호남에서 얻은 득표율이 더 높은 정도(b)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영남에서 얻은 정당득표율은 전국득표율에 비해 13.5%p만큼 더 높았고, 민주당의 호남에서의 정당득표율은 전국득표율보다 17.8%p 더 높았다.

그러나 영호남민의 지역정당에 대한 지지는 지역주의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념적인 요소가 섞여서 나타난 결과이다. 달리 말하면, 두 정당의 영호남에서의 지지는 영남민과 호남민의 이념성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영남민은 진보적인 유권자보다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수적인 미래통합당을 더 지지한다. 영남에서 보수적인 유권자가 진보적인 유권자보다 더 많은 정도(c) 때문에 초래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차별적인 지지는 지역주의 투표가 아니라 이념투표의 결과로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는 진보적인 유권자가 보수적인 유권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민주당을 더 지지한다.

따라서 영호남민이 자신의 지역정당에 보내는 차별적인 지지와 지역주의 투표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 지역주의 투표는 지역정체성, 지역적인 혜택에 대한 기대, 지역감정과 같은 지역주의적인 요인 때문에 지역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의 투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영호남민이 자신의 지역정당에 보내는 차별적인 지지에서 영호남민의 이념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지지 차이를 차감한 나머지를 계산해야 한다. 예컨대, <표>에서 영남 지역주의 투표는 (a)-(c)로 계산되고, 호남 지역주의 투표는 (b)-(d)로 계산될 수 있다.

<표> 영호남민의 차별적 지역정당 지지와 이념적 구성 비율 차이

| 지역 | 지역정당에 대한 차별적 지지 (지역득표율-전국득표율) | | 이념적 구성차이 영남: 보수 우세 정도 호남: 진보 우세 정도 | | 지역주의 투표정도 영남: (a)-(c) 호남: (b)-(d) | |
|-----------|-------------------------------------|--------|--|--------|---|---------|
| | 영남 (a) | 호남 (b) | 영남 (c) | 호남 (d) | 영남 (e) | 호남 (f) |
| 15 대 대선 | 21.5%p | 54.0%p | 6.2%p | 0.0%p | 15.3%p | 54.0%p |
| 16 대 총선 | 17.0%p | 29.4%p | -3.1%p | 23.0%p | 20.1%p | 6.5%p |
| 16 대 대선 | 23.4%p | 44.2%p | -6.7%p | 27.5%p | 30.1%p | 16.7%p |
| 17 대 총선 | 16.3%p | 25.0%p | 0.3%p | 44.4%p | 16.0%p | -19.4%p |
| 17 대 대선 | 16.0%p | 30.3%p | 13.3%p | 18.7%p | 2.6%p | 11.6%p |
| 18 대 총선 | 19.2%p | 28.2%p | 25.6%p | 14.1%p | -6.4%p | 14.1%p |
| 19 대 총선 | 16.6%p | 21.2%p | 25.8%p | 22.5%p | -9.2%p | -1.3%p |
| 18 대 대선 | 19.2%p | 40.8%p | 16.6%p | -0.7%p | 2.7%p | 41.4%p |
| 20 대 총선 | 13.5%p | 26.7%p | 11.5%p | 19.0%p | 2.0%p | 7.7%p |
| 19 대 대선 | 14.7%p | 27.5%p | 7.6%p | 24.0%p | 7.1%p | 3.4%p |
| 21 대 총선 | 13.5%p | 17.8%p | 0.0%p | 17.8%p | 13.5%p | 0.0%p |
| 평균 | 17.3%p | 31.4%p | 8.8%p | 19.1%p | 8.5%p | 12.2%p |

[문제2-1] ① (가)와 (나)가 지역주의 투표에 대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차이점을 기술하고, ② (가)와 (나)가 지역주의 투표를 바라보는 시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다)를 통해 기술하시오. ③ <표>의 자료를 근거로, 21대 총선 당시 영남에서의 지역주의가 심화되지 않았다는 (나)의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① <표>에서 21대 총선 당시 지역주의 투표가 영남과 호남 중 어떤 지역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는가를 서술하시오. ② 영남민의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와 호남민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표>의 이념적 구성 차이와 지역주의 투표 정도를 통해 설명하시오. ③ 지역주의 투표는 증가해도 지역정당에 대한 차별적인 지지가 감소할 수 있는 이유를 19대 대선과 21대 총선 결과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